

# 일본의 이주배경 청소년 조직 '스탠바이미'의 당사자성의 구성\*

이혜진\*\*·김현미\*\*\*

## 요약문

이 연구는 '스탠바이미(すたんどばいみー)'라는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이초단지(いちょう団地)를 거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당사자조직에 관하여 분석한 것이다. 스탠바이미의 조직자 및 활동가들은 인도차이나 난민의 자녀들로 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소수자로서, 오랫동안 가족에서의 성역할, 경제적 기여에 대한 기대와 주류사회가 지속적으로 심문하는 소수자성 사이의 격차를 매우면서, 오랜 기간 혼종적 정체성을 '결핍'이나 '부재'의 문제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난민들을 지역적으로 격리하며 사회적 지원을 해왔던 일본의 난민지원 시스템의 결과물인 이초단지라는 '게토화된' 주거 단지는 그곳에서 성장해 온 활동가들의 인식 세계를 확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스탠바이미 활동가들은 지난 20년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학교 조직이나 교사와의 연계, 이주학자나 관련 활동가 단체와의 연대, 선주민 일본인 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 임파워먼트라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스탠바이미에 대한 문헌조사, 현장 방문 및 참여관찰, 조직자 및 활동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스탠바이미의 사례가 향후 동아시아 이주배경 청년들의 임파워먼트 및 초국적 사회운동의 모범 사례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들이 행한 당사자운동의 당사자의 의미를 확장시켜온 과정을 분석했다.

주제어 : 이주배경 청소년, 당사자, 난민성, 소수자 정체성, 초국적 사회운동, 일본

\* 이 연구는 2016년 12월~2018년 11월까지 진행된 한일이주배경청년 임파워먼트를 위한 디센트위크 추진 프로젝트(2016-2017年度トヨタ国際助成プログラム)의 한 일교류 경험이 계기가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교류의 기회를 주신 고베정주외국인지원센터(神戸定住外国人支援センター, KFC) 김선길 이사장님과 인터뷰와 자료제공에 협력해주신 스탠바이미의 츄프 사랑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울산여성가족개발원 부연구위원,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교신저자

## I. 서 론

‘스탠바이미(スタンバイミー)’는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이초단지(いちょう団地)를 거점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중심으로 자치적인 운영·활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단체이다.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초단지에서 스탠바이미는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학습지원교실과 모국어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각 교실의 참가자는 인도차이나 및 중국, 남미(페루, 아르헨티나)에서 온 아동·청소년이다. 그리고 이런 교실 외에도 자신들의 배경을 알아보는 활동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재해지역의 아동들을 지원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스탠바이미의 조직자 및 활동가들은 인도차이나 난민의 자녀들로 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소수자였다. 이들은 오랜 기간 가족에서의 성역할, 경제적 기여에 대한 기대와 주류사회가 지속적으로 심문하는 소수자성 사이의 격차를 메우면서, 오랜 기간 혼종적 정체성을 ‘결핍’이나 ‘부재’의 문제로 인식해왔다. 즉, 한편에서는 가족관계 속에서 종족의 연속성을 이어나가야 할 세대 간 문화 전승의 담당자로, 다른 한편에서는 주류 사회가 제공해주는 기회와 자리에 적극 참여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이뤄낸 모범적 소수자로서 동화되도록 요구받는다. 이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문화적 혼종성은 두 개의 세계 모두에 소속되지 못하는 ‘부재’와 ‘결핍’으로 이해되었고, 심리적 ‘위축감’을 경험해왔다. 그러나 난민들을 지역적으로 격리하며 사회적 지원을 해왔던 일본의 난민지원 시스템의 결과물인 이초단지라는 ‘게토화된’ 주거 단지는 그곳에서 성장해 온 활동가들의 인식 세계를 확장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자신의 소수자 신분이나 계급의 표식이었던 이초단지는 난민 및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지이며, 동시에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준거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초단지는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느끼는 다중적 기대와 그에 부합하기 힘든 어려움, 주류사회의 동화 압력과 이와 모순되는 장기적인 격리의 상황, 직업적 기대와 제공된 기회의 한계와 협소함 간의 격차를 경험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변화를 이뤄내는 운동의 기반이 된 것이다. 결국 나의 경험은 너의 스토리이고, 너의 스토리는 나의 세계관이 되면서 종족과 국적을 뛰어넘는 다문화적 사회운동의 지역적 기반을 구성해낼 수 있었다. 외국인 집중거주지라는 공간에서 함께 성장했다는 거주 경험이 사회운동을 만들어낸 핵심적인 '공동의 경험'으로 작용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스텐바이미가 주류 사회의 성인 활동가에 의해 구성된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초단지에서 성장한 이주배경 청년 및 청소년 '당사자'들에 의해 주도된 조직이라는 점, 스텐바이미가 사회운동 경험이 많은 노련한 리더가 아닌 아마추어들에 의해 구성되었지만 20여 년 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다는 점, 조직의 구성, 유지,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과 개방적인 연대를 구성해왔다는 점은 이주자 당사자 운동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이다. 본 연구는 스텐바이미의 '당사자 활동가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느끼는 소외감, 학교에서의 차별, 낮은 모국어 능력, 부모들의 역량 부재 등은 '공통적인 경험'으로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당사자라 부른다. 하지만 당사자를 동질적인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란 협소한 의미로 한정할 경우, 이들이 벌이는 운동은 지속적인 게토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스텐바이미 활동가들은 지난 20년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학교 조직이나 교사와의 연계, 이주학자나 관련 활동가 단체와의 연대, 선주민 일본인 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 임파워먼트라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이초단지라는 구체적인 로컬과 자신과 부모의 모국을 연결하고자

하는 초국적 행위자성을 발휘해가면서 문화적 자부심을 회복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벌였다. 이렇게 일본의 지식인 및 다양한 사회운동조직과 연대체를 구성해가며 ‘당사자성’의 범주와 의미를 확장시켜내는 노력을 벌이면서 자신의 위상을 높여갔고 마침내 법인을 구성하게 된다. 본 논문은 스탠바이미의 사례가 향후 동아시아 이주배경 청년들의 임파워먼트 및 초국적 사회운동의 모범 사례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들이 행해 온 당사자 운동의 당사자의 의미를 확장시켜온 과정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스탠바이미에 대한 문헌조사, 현장 방문 및 참여관찰, 조직자 및 활동가에 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난민성과 소수자 정체성

스탠바이미 조직자들의 공통적인 배경이 난민 부모와 함께 이주하거나 일본에 이주한 후 태어났다는 점이다. 이들 활동의 근거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난민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난민가족은 ‘공포’와 박해의 경험이라는 상흔을 가진 가구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부모의 가족 유지 능력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 없이는 가족 안정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특히 대부분의 난민 가족은 본국에서 떠나와 비호국에서 ‘핵가족’ 형태로 존재하고, 이에 따라 위기 시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확대 가족 구성원들이 부재하다.<sup>1)</sup> 무엇보다 난민아동의 삶의 질과 미래 기획은

---

1) Tingvold, Laila, et al, “Parents and children only? Acculturation and the influence of extended family members among Vietnamese refuge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36, no.2(2012), pp.260-270.

부모의 상황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기존의 연구들은 난민 부모가 경험하는 트라우마가 아동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sup>2)</sup> 특히 난민아동들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본거지를 잃고, 추방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수면 및 섭식 장애, 분리 공포, 반복적인 수동성과 공격성 등과 같은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sup>3)</sup> 그러나 부모의 상흔이 아이들의 사회 정착에 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또한 많다. 대량학살의 '생존자' 부모를 둔 캄보디아 난민아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소년들 중 일부는 공격성, 위험 행동, 학업 실패 등을 보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생존력이 소녀들에게는 긍정적인 사회 적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한다.<sup>4)</sup> 성인 난민의 불안정한 지위와 경제적 빈곤은 자녀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동시에 부모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비호국에서 구성해내는 삶의 기획력과 노력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난민 자녀들의 성장과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난민이 모든 이주민들 중 상대적으로 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부류라는 것을 일깨운다. 난민은 대규모로 유입되는 경제적 이주자나 이민자들과는 달리 수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문화적 소수자의 지위에 오랜 기간 머무르는 이주민 집단이다. 이들은 대규모 이민자 집단처럼 종족 마을을 건설하여 종족 경제를 발전시키거나 문

---

2) Marina Ajduković, Dean Ajduković, "Psychological well-being of refugee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vol.17, no.6(1993), pp.843-854; Rousseau, Cécile, Aline Drapeau, and Robert Platt, "Family trauma and its associatio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social adjustment in adolescent Cambodian refugees," *Child Abuse & Neglect*, vol.23, no.12(1999), pp.1263-1273.

3) Ajdukovic and Ajdukovic(1993), pp.843-854.

4) Rousseau, Cécile, Aline Drapeau, and Robert Platt, "Family trauma and its associatio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social adjustment in adolescent Cambodian refugees," *Child Abuse & Neglect*, vol.23, no.12(1999), pp.1263-1273.

화적 전수를 할 수 없는 수적으로나 정치 문화적으로 소수자이다. 이 때문에 친족이나 종족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여 자원이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길 또한 제한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난민은 주류 호스트 사회 내에서 문화적으로 매우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대 간 문화적 전수 또한 불가능하다. 이러한 난민의 특수한 조건은 난민 자녀들의 사회적 상승 이동의 기회를 제한하는데 영향을 준다. 즉, 난민 자녀들이 학교를 포함한 공식적인 제도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빠르게 적응해 간다하더라도 사회화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친족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과 지원체제의 부족으로 진학, 직업 찾기, 진로개발 등에서 상상력이나 기회를 확장해가기 힘들다.

## 2. 두 개의 세계와 '결핍'의 정서

정체성 형성은 어떤 청소년에게나 어려운 과정이지만 난민청소년에게는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가족과 자신이 속한 소수 공동체와 주류 공동체 간의 기대 차이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성역할 기대, 인종차별주의, 경제적 빈곤화는 청소년의 자신감, 자존감, 주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주류사회는 문화적 소수자나 이주배경 자녀들이 학교라는 공식적인 제도에 편입되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게 되고 정체성의 혼란을 줄여나가면서 주류사회에 동화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학교는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을 변화시켜내는 가장 결정적 장소다.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에 들어간 후 참조집단을 빠르게 변화시킨다. 주류 대중문화나 미디어를 모르면 또래친구들과 대화하기 어렵고, 비슷한 것을 소비하지 못하면 '끼일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학교가 옹호하는 주류집단의 사고와

관습을 “유일하게 정당하고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 한다”.<sup>5)</sup> 동시에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들은 주류 포래집단의 행동과 말투, 음식에 대한 취향을 모방하면서 주류 집단의 구성원다움을 연행(perform)한다. 때로는 자신이 운반하는 얼굴색, 젠더, 계층적 지위 등의 ‘차이들’을, 모험심, 색다름, 유머 등으로 재포장하면서 과감한 자아를 구성하기도 한다. 주류 집단에서 쉽게 ‘눈에 띄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주배경 아동이 소속감을 획득하기 위해 벌이는 노력은 이주자 성인의 그것보다 더 즉각적이고 절실하다.<sup>6)</sup> 문제는 이런 ‘승인’이 하나의 참조 체계나 하나의 세계 안에서 구성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가족이나 친족 집단에서 요구하는 종족 문화의 기표로서 2세대란 기대 때문에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에서 요청되는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중적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한다. 온전한 수용이라는 소속의식 없이 늘 ‘사랑’과 ‘낙인’이라는 극단적 인정/불인정의 세계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또 다른 이슈는 가족과 호스트 사회 사이의 경계에 놓여있다는 느낌을 가진 채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늘 자신을 결핍의 존재라고 인지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문화적 혼종성은 종종 다중의 ‘결핍감’을 낳게 한다. 그들은 특정 국가나 종족 출신으로 인지되지만 모국의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완전한 모국어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도 둘 다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중의 결핍감과 능력의 부재를 심각하게 의식한다. 때로는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혼용해서 독특한 단어와 언어 사용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재일 조선인 3세에 대한 권준희의 연구에서 보듯, 이들은 발화하는 언어의 장에 따라 일본말, 한국말, 우리말로 할 것인가를

5) 정영혜 저·후지이 다케시 옮김. 『다미가요 제창』 (서울: 삼인, 2011), p.103.

6) 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서울: 돌베개, 2014), p.172.

자연스럽게 결정하면서 ‘장’에 따른 언어수행을 분업화해간다.<sup>7)</sup> 이런 언어적 수행은 ‘전략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수행을 적절히 하지 못할 경우 비난에 쉽게 노출된다.

이들의 ‘결핍감’은 곧 소속의식의 불완전함으로 이해되면서 이주배경 청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부모 세대와의 갈등을 해결해나가기도 한다. 그들은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나마 공동의 기억으로서의 문화와 언어를 복원 해나가려는 시도를 벌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해간다. 이미 혼종화된 형태의 문화 및 언어적 감각을 지닌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정체성 긍정 운동은 이 때문에 도달할 수 없는 토착성, 진정성, 원류를 찾아 떠나는 순례와도 같은 형태를 띤다. 이는 곧 이들이 초국적 행위자로 진입하는 시도나 기회와도 연결된다. 이들은 부모 세대의 집단 기억을 공유할 수 없지만, 이들의 자취를 자신의 시공간에 기입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즉, 부모 나라의 언어 획득, 부모 고국 방문 및 언어 연수, 관광, 일자리 찾기 등의 초국적 실천을 함으로써 더 이상 부모 나라와 호스트 국가라는 두 세계에 끼인 존재가 아닌 이 둘을 연결해내는 초국적 행위자로 스스로를 구성해낸다. 그러나 모든 이주배경 청년들이 초국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자발적 비적응’<sup>8)</sup>이나 분절적 동화(segmented assimilation)<sup>9)</sup>를 통해 주류 지배문화와 거리를 두는 저항의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sup>10)</sup>

7) 권준희, “재일조선인 3세의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 : 조선학교 출신 ‘조선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8) 장선하, “한국사회의 탈북이주민 국민 만들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

9) Portes, A and M, Zhou, “The New Second Generation: Segmented Assimilation and Its Variants,” *Annals, AAPSS*, vol.530(1993), pp.449-464.

10) 장선하(2008).

### 3. 지역적인 것과 초국적인 것의 연결을 통한 사회운동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주배경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관점은 초국주의(transnationalism)의 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이주민 연구들이 주로 동화와 문화변용의 관점으로 이들을 바라봄으로써 정착을 어렵게 하는 문화적 갈등 요인, 경제적 조건, 국가와 지역사회의 정책의 문제점, 심리적 불안감 등을 분석하는 것에 주목해왔다면, 초국주의는 모든 이주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떠나온 본국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살고 있는 제 3국과도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사회적 상상력을 확장하고 실천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11)</sup> 레비트과 쉐러는 초국적 이주자(transmigrants)라는 용어를 통해 모든 이주자들은 소위 본국과 자신이 이주한 국가에서 가족적, 경제적, 사회적, 조직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관계망들을 갖고, 이러한 관계망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이에 따른 변화된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들임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이런 행위에 속하는 것은 자신의 본국을 방문하는 것에서부터, 본국의 언어를 익히고, 문화적 습관 등을 수행하는 것, 본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 전화를 하는 것, 편지를 보내는 것, 본국의 방송을 위성을 통해서 시청하는 것, 본국의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 혹은 반대하는 것 등 다양한 행위들이 포함된다. 또한 사적인 공간에서 행하는 초국적 실천 행위들, 예를 들어, 이중 언어를 구사하거나, 생일이나 축제일에 본국의 음식을 차리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관광, 직업, 연수, 친족 방문을 통해 물리적 격차를 줄이면서 현지 체류를 통한 감각의 세계를 공유

11) Levitt, Peggy, and Nina Glick Schiller,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s perspective on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38, no.145(2004), pp.595-629; Smith, Michael Peter, and Luis Eduardo Guarnizo, eds, *Transnationalism from below*, Vol. 6, Transaction Publishers, 1998; Portes, Alejandro, "Globalization from Below: The Rise of Transnational Communities," *Transnational Communities Working Paper Series 98-01* (Oxford: University of Oxford, 1998).

해 나가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주자들의 문화적 혼종성을 주류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직 덜 동화된 상태로 바라봤던 기존의 논의에서 이런 문화적 행위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의식적인 실천으로 인정된다. 즉, 이주배경 청년들의 초국적 경험은 이들을 호스트 사회의 영원한 주변적인 존재라는 인식으로부터 탈피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조건들과 관계망을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관계들을 형성해내면서 기존의 의미들을 재해석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다. 즉, 이주배경 청년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라는 ‘고정적으로 주어진 위치’에 머물지 않고, 다중적이고 상호 연결된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아이디어나 자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교환, 조직, 변형하는 실천들을 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스탠바이미의 활동가들은 대학 재학 전후에 부모 나라를 방문하거나 언어 연수, 교환 학생, 친족 방문을 하면서 문화 혼종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과 고립감을 해소해가는 전환기적 경험을 맞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본국 혹은 부모나라 문화를 알지 못하거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해 늘 주변으로부터 판단을 당한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뿌리, 문화 자원, 직업 기회 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주배경 청년들의 사회운동을 분석한 연구들 또한 초국적 경험이 어떻게 청년 중심의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강조한다. 클라라 루비오와 스트레커의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경제 공황이후 전 세계적으로 청년 이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런 수적 증가가 이주 청년들의 사회운동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한다.<sup>12)</sup> 최근의 임시, 단기로 해외로 이주하는 유럽 청년들은 초국적 경험을

12) Rubio, Clara, and Tanja Strecker, “Catalan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previous and prospective experiences abroad: answering the wh-questions in a context of economic crisis,”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vol.26, no.2(2018), pp.180-196.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구성해내는 전략으로 보기도 한다. 즉, 연구자들이 다룬 스페인 청년들의 사례에서 그들이 영국, 독일 등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학교 졸업이후 '실업자'가 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자신의 이력서에 고스란히 이 시간을 남겨야 하는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주를 감행한다. 이들은 이주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본국의 사회 정치적 상황에 민감해지면서 운동을 벌여나간다. 이들은 호스트 국가에 적응 혹은 동화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본국, 호스트 국가, 주변 국가 등이 제공하는 기회들을 살피고, 언어나 직업 훈련에 필요한 시간이나 경험을 쌓는다. 이 때문에 초국적 임시 체류자들은 장기 이민자 청년들보다 이주에 대한 만족감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전지구적 경제 위기와 사회적 불안은 청년층에게 더 많은 위기로 다가왔지만 이들은 적극적인 해외 이주를 통해 더 많은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동시에 본국과 호스트 국가 모두의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초국적 사회운동을 벌여나간다는 것이다. 물론 단기, 임시 이주 혹은 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초국적 경험이 모든 이주청년들에게 삶의 기회를 확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여전히 호스트 국가의 이주 및 노동 정책에 영향을 받고 또 한 번의 주변화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초국적 경험이나 연결성이 자신에게 부과되어왔던 호스트 주류 사회의 다양한 통제, 평가, 인정의 틀을 상대화시켜낼 수 있는 문화 역량을 증진시키는 촉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스텐바이미 활동은 결핍의 환기체로서의 문화 혼종성을 임파워먼트의 계기로서 전환시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에서는 스텐바이미의 활동의 본거지인 이초단지가 생겨난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 Ⅲ. 일본의 인도차이나 난민 상황 및 거점지역 이초단지

#### 1. 일본의 인도차이나 난민 상황<sup>13)</sup>

일본에서는 1970년대 후반의 인도차이나 난민의 대량 유출을 계기로 난민문제에 관한 논의가 급속히 활발해졌다. 이로 인해 1981년 6월에 국회에서 난민협약·의정서 가입이 승인되어, 1982년 1월 1일부터 난민협약·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새롭게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하면서, 법률명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으로 바뀌었다. 1982년의 난민인정제도 도입부터 2017년까지 난민 신청건수는 60,674건이며, 그 중 난민으로 인정된 것은 708건, 인도적 체류 허가는 2,588건이다. 난민인정자는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영주허가요건이 일부 완화되었으며, 난민여행증서가 교부된다. 그리고 난민협약에 규정된 난민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장관계법령에서 국적요건을 철폐하는 등 법제도의 정비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초등교육, 국민연금, 아동부양수당, 건강보험 등에서 일본국민과 동일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난민 유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인도차이나 난민은 1975년 전쟁 종결 이후로 국외로 탈출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 난민을 총칭한다. 1975년 4월말 베트남정권 붕괴 이후에 보트피플<sup>14)</sup>의 유출이 심해졌고, 5월에는 일본에 처음으로 보트피플이 도착했다. 보트피플은 1975년에 9척 126명이 유입되었으며, 그 후로 급증하여

13) 외무성(外務省), “일본의 난민 상황(国内における難民の受け入れ),” <https://www.mofa.go.jp/mofaj/gaiko/nanmin/main3.html>(검색일: 2018.10.02).

14) 보트피플은 베트남에서 어선 등 소형선을 타고 탈출한 베트남 난민을 말하며, 소형선으로 직접 주변국으로 가거나 남중국해를 표류하다가 항해중의 유조선이나 화물선에 구조되어 기항지의 항에 상륙했다.

1979년에서 1982년까지는 매년 1,000명 정도가 일본에 도착했다.

일본은 당초 보트피플의 일시적 체류만을 인정하려고 했으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난민 수가 급증하게 되자 인도차이나 난민의 정주 허가를 요구하는 국내외의 의견이 강력해졌다. 1978년 4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베트남 난민의 정주를 인정하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1980년 6월 17일 내각회의에서는 '합법출국계획(ODP: Orderly Departure Program)'<sup>15)</sup>의 수속과 아시아 국가의 캠프에 체류하는 난민의 가족재결합을 위한 정주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인도차이나 난민의 세계 유출은 1979년 39만 명으로 정점에 달하였고 이후 '합법출국계획' 실시로 감소하다가, 1982년부터 다시 증가하게 되어 1989년에는 약 8만 명이 유출되었다. 인도차이나 난민 재증가의 주요 원인은 빈곤으로 인한 생활고였다. 1989년 6월 인도차이나 난민 국제회의가 '포괄적 행동계획(CPA: Comprehensive Plan of Action)'<sup>16)</sup>을 채택한 이후, 인도차이나 난민의 세계 유출이 격감했고, 1995년부터는 일본에 보트피플이 상륙하지 않게 되었다. 1978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인도차이나 난민

15) 합법출국계획이란 1979년 5월 30일에 UNHCR과 베트남 정부 간에 결정된 '합법출국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가족재결합과 기타 인도적 상황의 경우에 한하여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 이 양해각서는 1979년 전반의 베트남 난민 보트피플의 폭발적인 증가를 배경으로 보트피플의 해양사고 및 해적에 의한 피해 방지 등의 인도적 차원의 이유와, 일차 비호국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UNHCR이 난민 유출을 억제하려는 방법으로서 합법출국에 대해 베트남정부와 협의한 결과 체결된 것으로, UNHCR의 원조 하에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합법적 출국이 시작되었다.(출처: '인도차이나 난민과 일본의 대응' 내각관방 인도차이나 난민 대책 연락조정회의 사무국)

16) 포괄적 행동계획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베트남은 보트피플 유출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합법출국계획 등을 촉진한다. (2) 새롭게 유입하는 보트피플에 대한 난민자격 인정작업(스크리닝)을 실시하여, 불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국 정주는 인정하지 않고, 본국귀환을 장려한다. 그리고 베트남으로의 귀환자에 대해 UNHCR을 통한 정주 지원을 실시한다. (3) 스크리닝 실시 전부터 ASEAN 등의 난민캠프에 체류한 난민 및 스크리닝 결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정주를 받아들인다. (4) 라오스 난민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 중인 난민 인정작업 계획 및 자국귀환 계획을 촉진한다.(출처: '인도차이나 난민과 일본의 대응' 내각관방 인도차이나 난민 대책 연락조정회의 사무국)

수용은 2005년에 종료되었고, 총 11,319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일본에 있는 인도차이나 난민의 유형을 살펴보면, 보트피플 3,536명(31%), 해외캠프 체류자 4,372명(41%), ‘합법출국계획’에 따른 출국자 2,669명(21%), 원래 유학생 등 742명(7%)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차이나 난민의 경우 일본이 난민협약을 가입하기 이전부터 난민으로 받아들였으므로,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협약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난민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으나, 난민협약에 준한 처우를 받고 있다.

1979년 10월 내각회의 합의로 인도차이나 난민의 정주지원 방침이 결정되어, 난민의 정주촉진사업을 위해 ‘난민사업본부’가 발족되었다. 난민사업본부 산하에 효고현 히메지 정주촉진센터, 가나가와현 야마토 정주촉진센터, 도쿄도 국제구원센터가 설치되어, 일본어 교육, 직업 소개, 직업 훈련 등의 정주촉진업무가 시작되었다. 점차 인도차이나 난민 유입 수가 감소하자, 1996년에는 히메지 정주촉진센터, 1998년에는 야마토 정주촉진센터, 2006년에는 국제구원센터가 폐지되었다.<sup>17)</sup>

당시, 정주촉진센터의 입소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었고, 난민들은 그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본어 회화능력 및 문해력을 학습했다. 그 후 쓰레기 분리수거 등 일본생활에 필요한 매너나 료, 일본의 노동관행 및 직장에서의 인사법, 보험제도, 급여 구조 등 사회생활 적응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정주촉진센터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실시했고, 센터에 직업상담원을 배치하여 난민들에게 취업을 알선했다. 또한 인도차이나 난민을 고용하는 사업체나 고용주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sup>18)</sup>

17) 국제구원센터는 2003년부터 인도차이나 난민 이외에 협약난민을 위한 정주촉진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인도차이나 난민의 일본 유입이 종결되면서 국제구원센터는 2006년 3월말로 폐쇄되고, 동년 4월부터는 새롭게 RHQ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협약난민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주촉진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 9월부터는 재정착난민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18) アジア福祉教育財団難民事業本部, 『姫路定住促進センター16年誌—日本で最初のインドシナ難民定住促進の役割を終えて—』 1996, 1998.

## 2. 외국인 밀집지역 이초단지

인도차이나 난민이 정주하기 위해서는 주거 확보가 중요한 과제였다. 예전에는 공영주택의 입주에 외국적자는 배제되었지만, 1979년의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게 되면서 차별적 제도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외국인에게는 집을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민간아파트의 확보가 어려워져서, 기업에 채용되더라도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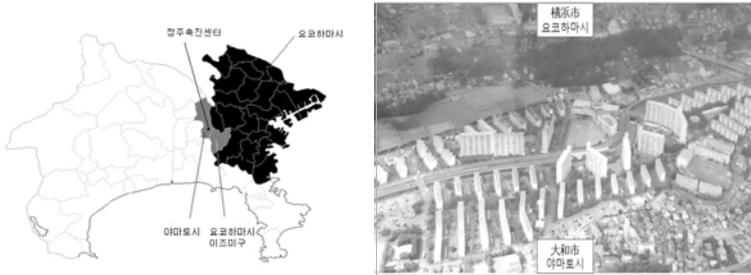
인도차이나 난민들의 집중거주지인 이초단지는 가나가와현 야마토시와 요코하마시 이즈미구에 걸쳐 있는 공영주택단지이다. 이 단지는 전체 84동에 달하는 거대 단지로, 1970년대 전반에 건설되었다. 도쿄까지는 전철로 약 1시간 정도로 갈 수 있으며, 왕복 교통비도 1,000엔 정도로 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공장도 많이 있으며,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직장도 다른 곳에 비해 많은 편이다.<sup>20)</sup> 이초단지에 외국인이 거주하게 된 것은 일본정부가 인도차이나 난민을 받아들여지게 된 수년 후인 1980년대 중반부터라고 한다. 이초단지와 근접한 곳에 인도차이나 난민의 정주촉진센터가 설치되어 있었기에<sup>21)</sup>, 인도차이나 난민의 정주화로 인해 거주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귀국자와 그 가족, 그리고 남미에서 온 일계인(日系人)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였다. 2011년도 5월 이초

19) アジア福祉教育財団難民事業本部(1996, 1998).

20) 瀬戸徐映里奈, 『『食の確保戦略』からみるインドシナ難民の定住課程——兵庫県姫路市と神奈川県県営『いちょう団地』を事例として, GCOE ワーキングペーパー, 次世代研究100, 京都大学グローバル COE 『親密圏と公共圏の再編成をめざすアジア拠点』 2013, p.15.

21)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미나미린칸(南林間)에 정주촉진센터가 설치된 것은 1980년이였다. 사철 치선의 주택지였던 가톨릭 요코하마교구가 소유하던 청소년 복지시설이었던 곳에 건설되었다. 정주촉진센터의 설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야마토시 미나미린칸 자치회와 아시아복지교육재단 그리고 야마토시의 삼자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각서가 교환되었다(神奈川県大和市議会, 1993; 瀬戸徐, 2013: 15).

단지 자치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2,099명의 입주자 가운데 외국적자 수는 506명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그 중 베트남 국적 혹은 출신자는 203명, 캄보디아 국적 혹은 출신자는 32명, 라오스 국적 혹은 출신자는 11명으로 집계되었다.<sup>22)</sup>



출처 : 지도는 세토서(瀬戸徐, 2013: 16), 사진은 츄프 사랑 심포지엄 발표자료 (2018.9.15.) 중 발췌

<그림 1> 이초단지 위치 지도(왼쪽) 및 항공사진(오른쪽)

#### IV. 스탠바이미의 결성 및 활동<sup>23)</sup>: 당사자가 에이전시가 되는 과정

##### 1. 일본인 중심의 ‘학습지원교실’에서 벗어나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자치 활동 추진

외국인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초단지의 특색에 따라, 2000년대 이전부터 단지 내의 공공시설에서는 일본인 불연티어가 주최하는 외국인 대상 일본어교실과 어린이 대상 학습지원교실이 열렸다. 학

22) 瀬戸徐(2013), p.16.

23) 스탠바이미의 결성 및 활동 부분의 내용은 시미즈 무쓰미(清水睦美)와 이에게미 사치코(家上幸子)의 ‘스탠바이미의 활동의 궤적(『すたんどばいみー』の活動の軌跡—外国人子どもたちによる「自治的運営組織」から「当事者団体」へ)’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했다.

습지원교실에는 훗날 스텐바이미의 창립멤버가 되는 청소년들도 참여하고 있었다. 스텐바이미의 초대 대표인 츠프 사랑은 고교 입시를 앞두고 학습지원교실을 다니게 되었다. 입시 준비 때문에 외출이 잦아지면서, 그만큼 가사 일을 하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주 충돌이 일어났다. 부모님께 고교 입시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고 몇 번이나 설명을 했지만 자신의 부족한 캄보디아어와 부모님이 구사하는 일본어로는 소통이 되지 않았다. 자신의 잦은 외출이 고교입시 준비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습을 도와준 일본인 볼런티어에게 공부를 마친 후 귀가할 때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주길 부탁했다. 부모님과 자신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게 된 이후, 집에 돌아갔을 때는 훨씬 분위기가 나아져 있었다. “이 전략은 그 뒤로도 내가 도움을 준 여자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이처럼 인도차이나계의 여자아이는 외출을 할 경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뢰받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벽’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츠프 사랑은 회고했다.<sup>24)</sup>

일본인 볼런티어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습지원교실에 모인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정체성 및 가정생활, 친구관계, 진로 등과 관련된 갈등과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다. 정체성은 “개인과 집단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며, 인종, 민족, 종교, 언어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기도 하며,<sup>25)</sup>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 그리고 그 속에서 기대되는 역할의 집합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sup>26)</sup> 한편, 집단적인 정체성은 배타적인 특성을 갖는 인위적인 개

24) チューブ・サラーン, 『『外国籍の女の子』としての問題を抱えながら』, 清水睦美・児島明編『外国人生徒のためのカリキュラム—学校文化の変革の可能性を探る』(京都: 嵯峨野書院, 2006), pp.213-214.

25) Deng, Francis M, *War of Visions: Conflict of Identities in the Sudan* (Washington, DC: Brookings, 1995), p.1.

26) Burke, Peter J., and Jan E. Stets, *Identity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sup>27)</sup>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모색의 결과, ‘모어교실’을 열게 되었고, 소년원에서 나온 이주배경 친구의 집을 방문하거나, 상담이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가정방문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당시츄프 사랑처럼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베트남어 교실, 캄보디아어 교실, 라오스어 교실, 중국어 교실 등을 열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실에 오지 못하는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가정방문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단순한 학습지원의 장을 각자의 어려움과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당사자 중심의 교육 현장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당시의 상황은 츄프 사랑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느 소녀와의 만남으로, 내가 그녀의 학교 공부를 돌봐주게 되면서부터, 그것이 나중에 지역의 외국인청소년에 의한 자치적 운영활동조직인 스탠바이미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소녀는 라오스 출신으로 나와 같은 이초 단지에 살고 있었다. 학교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나보다 나이도 어린 아이와 알게 되는 상황은 이전의 나에게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아이는 장녀로 밑에 여동생과는 7살 터울이었다. 거의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보육원에 가서 여동생을 데려와, 맛벌이하시는 부모님 대신에 여동생을 돌보며 가사 일을 도맡고 있었다. 이것이 당시 그 아이의 상황이었다. 장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거의 모든 것이 가족에 얽매어 있다는 점이 그 아이와 나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알았다.<sup>28)</sup>

일본인으로부터 정기적인 학습지원을 받는 것만으로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이뤄낼 수 없었다. 츄프 사랑을 포함한 청소년들은 학습지원교실에 참석하지 않는 지역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요청

27)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제44권 제1호(2010), p.212.

28) 츄프 · 사랑(2006), p.214.

에 따라 체육관을 빌려 농구시합을 하기도 하며,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자신 스스로가 실행”하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sup>29)</sup>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지원교실의 운영과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활동’, 이 두 가지를 한 교실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한계에 봉착하여 각 영역의 독립이 모색되었다. 마침내 2001년 5월 운영위원회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당사자 활동의 독립이 결정되면서, 이 활동을 ‘스탠바이미(すたんどばいみー)’라고 명명했다. ‘스탠바이미(すたんどばいみー)’라는 명칭은 당시 교실 운영에 참가하고 있던 청소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던 미국영화 ‘Stand by Me’에서 따온 것이다. 원래 외국어나 외래어의 경우 일본어로 옮길 때는 가타카나로 표기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문 없이 자연스럽게 ‘スタンバイミー(스탠바이미)’로 표기했으나, “가타카나는 읽지 못 한다”는 아이들이 있었고, 이에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가타카나 습득 정도가 상당히 낮다는 사실이 운영위원들 사이에 공유되어, 히라가나로 ‘すたんどばいみー(스탠바이미)’로 표기하여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읽기 쉽고, 알기 쉽도록 했다.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명칭 표기에 대한 결정에 대한 배려도 호스트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자치적 운영 조직으로 스탠바이미가 출발하게 되었지만, 당사자들은 자원이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이초단지 내부에 있는 중학교와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교사들이 스탠바이미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학교는 빈 교실을 스탠바이미에 제공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스탠바이미가 ‘선택교과 국제(이하, 선택 국제)’<sup>30)</sup>라는 수업과 관련 행사를 돕게 되면서 상호협력

29) 清水睦美·家上幸子, 『『すたんどばいみー』の活動の軌跡—外国人子どもたちによる『自治的運営組織』から『当事者団体』へ』, 清水睦美·『すたんどばいみー』編, 『いちょう団地発! 外国人の子どもたちの挑戦』(東京: 岩波書店, 2009) p.5.

30) 선택 국제의 자세한 커리큘럼은 清水睦美·児島明編(2006), 『외국인학생을 위한 커리큘럼—학교문화의 변혁 가능성을 모색한다(外国人生徒のためのカリキュラム—学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었다. 스탠바이미는 지역 학교와의 관계맺음을 통해 일본인 볼런티어에만 의존하던 전형적 시혜관계에서 벗어나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활동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2. 당사자단체 스탠바이미 : 이주배경 청소년에 의한 '자치적 운영조직'에서 '당사자단체'로

스탠바이미의 발족 이전부터 학습지원교실을 지원해 오던 이주청소년 연구자인 시미즈 교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당사자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를츠프 사랑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당시 스탠바이미의 초대 대표를 하면서, '선택 국제' 수업의 보조 스태프로 참가하던 츠프 사랑은 중학생에게 '수업 정리'의 예시를 보여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출신지인 캄보디아의 역사와 가족의 역사를 연관시킨 내용을 발표하고자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반발에 부딪쳐 발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나중에 츠프 사랑은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무언가 지금까지 없었던 벽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느낌이었다. 이때의 기분은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과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내가 이 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다."라고 정리했다. 그리고 "만약 장래 내가 부모님과 벽을 극복했을 때에는, 나 스스로가 '선택 국제' 수업을 해보고 싶다. 내가 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일본인 스태프가 수업을 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를 것이다. 따라서 그 날이 올 때까지 노력하고자 한다"라는 감상을 남겼다. 그리고 당시 츠프 사랑과 같이 보조 스태프를 담당했던 베트남 출신 대학생 틴도 "일본 스태프들에게 지원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는 우리들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감상을 적었다.<sup>31)</sup>

---

校文化の变革の可能性を探る)』를 참고하라.

31) 清水・家上(2009), pp.7-8.

츄프 사랑은 위에 언급된 자신의 경험에 대해 2006년 출간된 서적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나는 아버지의 뿌리를 묻고 연표를 정리하는 방법을 택했다. 당시 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집에서나 외출할 때나, 차 안에서, 부모님의 대화가 무르익을 즈음에 자주 나오는 전쟁 때 고생한 이야기 같은 거였다. 내가 '선택 국제' 교과의 발표 준비를 위해 종지와 펜을 집어 들었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엄청난 혐오감을 드러냈다. 아버지의 반응은 마치 자신이 숨기고 있던 것이 누군가에 의해 탄로나게 된 것만 같은 느낌을 주었다. 부모님의 '이야기'에 대해 아버지와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버지가 보통 때 아무렇지도 않게 전쟁 체험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대변해도 괜찮지 않을까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나와 아버지 관계는 갑자기 냉랭하고 서먹해졌다. 상당한 긴박감이 맴돌았고, 결국 내가 상황을 참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와 이에가미 선생님을 찾아가서 계속 울 수밖에 없었다.<sup>32)</sup>

이주배경을 가진 당사자에게 정체성에 관한 고민과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던 '선택 국제'라는 교과목은 시모후쿠다 중학교(下福田中学校)에서 2000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수업만들기'로서 시도된 교육 실천이었다. 여기에는 교사를 비롯하여 연구자, 볼런티어, 통역자, 지역의 외국인 청소년이 참여했다. '국제이해교육' 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육의 대부분은, 당사자인 외국인학생의 현실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으로 삭제시키고, 깔끔럽지 않은 '다문화'의 형태로 제공되기 십상이다. "이와 달리, '선택 국제'라는 교과과정에서는 외국인학생의 현실과 학교가 제공하는 것들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부조화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러한 갈등과 부조화를 초래하는 스타

32) 츄프(2006), p.208.

프 스스로의 입장을 의문시하면서 바람직한 수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설 새 없는 과정이었다”고 한다.<sup>33)</sup> 즉, ‘선택 국제’라는 과목에서 시도된 방식은 기존의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등에서 취해졌던 주류사회의 시선 혹은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의 관점에 선 역사 인식을 지양하고, 소수자의 입장에서 역사와 세계사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방식이었다.<sup>34)</sup> 이런 좋은 취지의 수업에서츄프 사랑은 부모님의 ‘난민’ 경험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꼈지만, 난민 당사자인 아버지는 그 경험이 가족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이었고, 학교에서 발화될 경우 쉽게 ‘낙인화’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난민 당사자인 아버지와 난민 자녀이며 이주배경 청소년 당사자인츄프 사랑에게 ‘당사자성’이란 의미와 그것에 따른 행위자성 및 정체성 또한 다를 수밖에 없었다.

스텐바이미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신들과 부모 세대의 관계 혹은 당사자 활동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스텐바이미의 현재 사무국장인 미야와키 에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부모님은 외국인이다. 어머니는 베트남인과 일본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셨고, 아버지는 베트남인과 중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 나의 모국은 베트남, 일본, 중국이다”라고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는 애매하기도 하고 확실한 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스텐바이미가 없었더라면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내가 외국인이라는 것과 부모님이 일본어를 잘 못한다는 것에 대해 항상 의식하며 생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싫었을 때가 있다. 왜

33) 清水·児島編(2006).

34) 시모후쿠다 중학교에서의 ‘선택 국제’ 수업과 별개로 스텐바이미의 자체 수업으로 ‘선택 국제 교실’이 시도된 바 있다.

부모님은 일본어를 일상회화 정도 밖에 말하지 못하는 걸까. 이유는 알고 있지만, 일본인과 친구들 앞에 섰을 때 부모님이 부끄럽다고 느끼는 내가 있다. 부모님께 통역하거나, 내가 서류를 만들어야 할 때, 역시 우리집은 외국인이라고 느낀다. 서류나 뉴스를 보고 있을 때 “통역해줘”라든가 “지금 그 말 뭐야”라고 묻지만, 이에 맞는 베트남어 단어와 일본어 단어를 모를 때는 통역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 “넌 학교도 다니는데도 모르냐”라는 핀잔을 듣는다. “모르는 건 몰라요”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부모님보다는 공부하고 있으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참는다. 이런 대화는 일본인에게에는 없는 대화겠지. 내가 처음 스텐바이미를 만나게 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데려가준 모국어교실이었다. 그리고 나의 모국어 관해서 의식해본 적 없던 나에게 베트남어는 외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어려웠으며, 고통스럽고, 지겨웠다. 그래도 이 교실에서 친구 바오를 알게 되었다. 나는 모국어교실에서 나에게 베트남 이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 지금까지 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 나는 외견상으로는 일본인처럼 보였고, 서류에는 일본 이름인 엄마 이름만 줄곧 적었다. 보통은 아빠 이름을 적었지만, 가타카나 이름이 부끄러워서 아빠 이름을 적을 때는 별로 없었다. 내가 외국인이란 사실을 친한 친구나 계속 만나는 친구들한테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자신의 모국을 숨기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런 딜레마가 없어질까?<sup>35)</sup>

위와 같이 적었던 미야와키는 10년 후인, 2018년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일본과 중국 양쪽의 배경을 가진 베트남인 2세입니다. 부모님은 인도차이나 난민과 일본인 친척 초청으로 일본에 온 지 38년이 되었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복잡하고 애매하고 무언가 확실히 표현하기 어려운” 정체성을 가진 이주배경 청년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지만, 그 만큼 “나답게 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스텐바이미와 함께 성장한 멤버들은 회사나 대학

35) 宮脇英理, 『見えてきたこと』, 清水睦美・「すたんどばいみー」編, 『いちょう団地発! 外国人の子どもたちの挑戦』(東京: 岩波書店, 2009), pp.175-177.

등 자신이 속한 조직의 다양한 문제를 극복해가면서, “일본인에게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외국인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스텐바이미 당사자 활동가들은 한편으로는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국과의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확인해간다. 스텐바이미의 리더격인 츠프 사랑은 2005년 여름에 캄보디아를 습득하기 위해 대학을 휴학하고 1년간 캄보디아에 체류했다. ‘말하기, 듣기’는 가능했지만, ‘읽기, 쓰기’는 할 수 없었던 모어를 제대로 습득하게 된 츠프 사랑의 경험은 스텐바이미의 다른 멤버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후 멤버들은 모국어 학습, 여행, 친지 방문을 위해 부모나라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언어습득 뿐만 아니라 친족네트워크 확장, 모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경제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초국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 3. 동일본대지진 관련 지원활동과 연대 활동<sup>36)</sup>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다. 스텐바이미는 피해지역 이주배경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sup>37)</sup> 스텐바이미는 아동 교육지원을 하는 단체인 Ed.벤처와 함께 피해지역의 아이들과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와테현(岩手県) 리쿠젠타카다시(陸前高田市)를 방문했다.

스텐바이미의 예상과는 달리 이주배경을 가진 아이들은 만날 수 없

36) 동일본대지진 관련 지원활동은 『국제결혼가정에서 자라는 필리핀계 뉴키머의 학교 적응에 관한 실증연구(國際結婚家庭に育つフィリピンニューカマーの学校適応に関する実証研究)』 성과보고서(2013년 3월 발간) 제6장 ‘3·11 동일본대지진과 외국인(츠프 사랑 집필)’와 ‘Ed.벤처’의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발췌하여 정리함.

37) 지진재해와 이주민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는 이혜진,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과 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 FMYY.” 『경제와사회』 통권 제96호(2012)를 참고하라.

었고, 대부분이 일본인 아동들이었다. 같이 놀던 남자아이 한 명이 스탠바이미의 멤버에게 작은 목소리로 “있잖아,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물에 떠내려간다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었고,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스탠바이미의 멤버들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고, 멍멍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이후 스탠바이미는 주말마다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가장 큰 문제인 자금 조달은 Ed.벤처가 조성금과 기부금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스탠바이미의 이 지역에서 의 아동 지원활동은 1년간 계속되었다.

지역 부모들의 요청으로 놀이 활동과 학습지원을 병행했는데, 아이들 개개인의 변화 상황이나 특이점을 기록하고, 부모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활동을 펼쳐갔다. 재해지역에서의 주말마다의 지원 활동은 기존의 활동들, 즉 이초단기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스태프 부족이나 운영위원회 개최 등의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스탠바이미의 일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스탠바이미 내부에서는 “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단체가 일본인을 지원하고 있는가?”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에 츄프 사랑은 이렇게 말한다.

재해지역의 피해를 알게 된 사람으로서,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 없는 상황을 눈앞에 두고, 외국인과 일본인이라는 대항축은 일단 휴전하고, 눈 앞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우선했다. 그러나 이 응어리는 해결되지 않은 채 재해지원활동은 계속되었다.<sup>38)</sup>

이주배경 아이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해온 츄프 사랑은 피해지역의 일본인 아이들을 지원 하면서, 스탠바이미의 아이들의 정서 상태나 학습태도와 이들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38) チュープ・サラーン, 『3・11東日本大震災と外国人』, 角替弘規編, 『国際結婚家庭に育つフィリピンニューカマーの学校適応に関する実証研究』, 平成22~24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礎研究(B)) (2013), p.514.

함께 과자를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같은 연령대의 이주배경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어른과 함께 있을 때의 태도가 자연스러웠고, 어리광도 잘 부리지만 예의도 바르다(2011. 4. 30. 기록).

학습 시간에는 모두가 집중하고 조용해졌다. 스탠바이미의 초등학교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 일본인 아이들에게는 지진피해 때문에 잃어버렸던, 집중해서 공부하는 ‘당연한 시간’을 다시 되돌린 것일 것이다. 그렇게 느껴졌다(2011. 12. 4. 기록).

지진재해의 지원 경험은 스탠바이미의 멤버들에게 당사사성의 의미를 확장시켜내는 경험을 가져다주었다. 피해지역 아이들을 넓은 의미의 ‘당사자’로서 인지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지진 피해자’와 ‘외국인’ 모두 각각 ‘곤란에 직면’했다는 측면에서 똑같은 ‘당사자’라는 인식이었다.

외국인지원단체로서, 그리고 외국인 당사자조직으로서 활동하고 있던 스탠바이미는 동일본대지진 관련 지원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후 외국인이라는 특화된 이유 말고도, 반핵운동, 지역운동 등에도 참가하는 등의 조직 활동에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에 대해 “공생의 방법론을 다함께 모색하는 시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라고 츠프 사랑은 해석한다.<sup>39)</sup>

## V. 결 론

스탠바이미는 2016년 11월 28일, NPO법인 외국인 지원 네트워크 스탠바이미로서 재출발했다. 스탠바이미의 설립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활동가들은 현재는 직업을 가진 사회인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발신력을 가진 단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외부 의존도를 낮

39) 츠프(2013), p.522.

추고, 자립적인 조직으로 운동을 확대시켜갈 예정이다. 함께 지진피해 아동을 돕던 스탠바이미와 Ed.벤처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받는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서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는 관계로 변화했다. NPO법인 스탠바이미는 현재 재정 및 운영 측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획득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세대교체 및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당사자 의식을 지닌 새로운 멤버들이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스탠바이미는 고등학교 입시 등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다가도, 그 시기가 지나가면, 스탠바이미의 활동 참가가 뜸해진다. 본인 중심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당사자 의식을 강조하는 스탠바이미의 활동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기 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활동에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하다.<sup>40)</sup>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별적 대응’ 중심의 활동으로 재편하는 등의 시도를 하면서, 모두가 당사자로서의 개별성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당사자성은 다르며 각자의 요구도 다르다는 자각이 생겼다고 한다. 각자 다른 당사자성을 가진 ‘다양성을 품은 조직체’로서 스탠바이미의 활동을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스탠바이미 당사자 활동조직의 역사는 이주배경, 특히 난민 자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당사자 활동성으로 극복하고자 한 사례다. 본 사례는 일본의 난민정착지원의 내용 또한 법적, 제도적 차원의 외연적 발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문화적인 지원을 통해 난민을 포함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자부심과 기여를 증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수적으로나 정치 문화적으로나 소수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길 또한 제한되어 있다.

40) 清水·家上(2009), p.9.

이 때문에 호스트 사회의 시민을 전제로 구성된 학교 커리큘럼이나 문화에서 배제되거나 낙인화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난민은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적으로 매우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대 간 문화적 전수 또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주자나 난민이 호스트 사회에 가져온 문화와 언어는 그 자체로 보존되고 향유되어야 할 귀중한 자원이다. 고립된 난민 가족 구성원간의 심리적 연결성을 회복하고 아동 및 청소년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이중 언어 사용과 초국적 연결성이 이들의 입파워먼트와 사회통합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탠바이미는, 포르테스가 지적한 것처럼<sup>41)</sup> 생존을 위한 사회적 자본이며 이주자나 외국인, 난민 등에게 강요되는 사회적 하향화나 하향동화에 대한 저항의 기능을 담당해왔고, 이런 운동에 선주민 자원봉사자, 지역교사, 교수 등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여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구성해가는 ‘당사자성’의 의미를 구성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이들은 이초단지에서 자라온 경험과 학교와 지역 사회의 로컬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활용하면서, 모국이나 본국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초국적 활동을 통해 정체성을 확장해가고자 했다. 스탠바이미는 이주민 당사자성에 머물지 않고, 일본 내의 다양한 재난 구호 및 아동 인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활동의 목적과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내고 있다.

---

41) Portes(1998).

## 참고문헌

- 권준희. “재일조선인 3세의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 : 조선학교 출신 ‘조선 작’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 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서울: 돌베개, 2014.
-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제44권 제1호(2010), pp.207-241.
- 이혜진.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과 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 FMYY.” 『경제와 사회』 통권 제96호(2012), pp.360-401.
- 장선하. “한국사회의 탈북이주민 국민 만들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8).
- 정영혜 저·후지이 다케시 옮김. 『다미가요 제창』 서울: 삼인, 2011.
- 츄프 사랑. “일본의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상황.” 한일이주배경청년 임파워먼트를 위한 프로젝트 심포지엄 『지속가능한 이주민 지원과 시민사회 역량강화』 서울, 2018.9.15.
- Burke, Peter J., and Jan E. Stets. *Identity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Deng, Francis M. *War of Visions: Conflict of Identities in the Sudan*. Washington, DC: Brookings, 1995.
- Hinton, Devon E., Angela Nickerson, and Richard A. Bryant. “Worry, worry attacks, and PTSD among Cambodian refugees: A path analysis investig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vol.72, no.11(2011), pp.1817-1825.
- Levitt, Peggy, and Nina Glick Schiller.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s perspective on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38, no.145(2004), pp.595-629.
- Marina Ajduković, Dean Ajduković. “Psychological well-being of refugee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vol.17, no.6(1993), pp.843-854.

- Rubio, Clara, and Tanja Strecker. "Catalan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previous and prospective experiences abroad: answering the wh-questions in a context of economic crisis."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vol.26, no.2(2018), pp.180-196.
- Portes, A and M. Zhou. "The New Second Generation: Segmented Assimilation and Its Variants." *Annals, AAPS* vol.530(1993), pp.449-464.
- Portes, Alejandro. "Globalization from Below: The Rise of Transnational Communities." *Transnational Communities Working Paper Series* 98-01. Oxford: University of Oxford, 1998
- Rousseau, Cécile, Aline Drapeau, and Robert Platt. "Family trauma and its associatio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social adjustment in adolescent Cambodian refugees." *Child Abuse & Neglect*. vol.23, no.12(1999), pp.1263-1273.
- Smith, Michael Peter, and Luis Eduardo Guarnizo, eds. *Transnationalism from below*. Vol. 6. Transaction Publishers, 1998.
- Tingvold, Laila, et al. "Parents and children only? Acculturation and the influence of extended family members among Vietnamese refuge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36, no.2(2012), pp.260-270.
- アジア福祉教育財団難民事業本部. 『姫路定住促進センター16年誌—日本で最初のインドシナ難民定住促進の役割を終えて—』 1996.
- \_\_\_\_\_ . 『大和定住促進センター18年誌—インドシナ難民の日本定住支援センターの軌跡—』 1998.
- 清水睦美・家上幸子. 『『すたんどばいみー』の活動の軌跡—外国人子どもたちによる『自治的運営組織』から『当事者団体』へ』, 清水睦美・『すたんどばいみー』編, 『いちょう団地発! 外国人の子どもたちの挑戦』, 東京: 岩波書店, 2009.
- 瀬戸徐映里奈. 『『食の確保戦略』からみるインドシナ難民の定住課程——兵庫県姫路市と神奈川県営『いちょう団地』を事例として, GCOE ワー

キングペーパー, 次世代研究100, 京都大学グローバル COE 『親密圏と公共圏の再編成をめざすアジア拠点』 2013.

チューブ・サラーン. 『『外国籍の女の子』としての問題を抱えながら』, 清水睦美・児島明編『外国人生徒のためのカリキュラム—学校文化の変革の可能性を探る』, 京都: 嵯峨野書院, 2006.

\_\_\_\_\_. 『3・11東日本大震災と外国人』, 角替弘規編, 『国際結婚家庭に育つフィリピンニューカマーの学校適応に関する実証研究』, 平成22~24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礎研究(B)) 2013.

宮脇英理. 『見えてきたこと』, 清水睦美・『すたんどばいみー』編, 『いちょう団地発! 外国人の子どもたちの挑戦』, 東京: 岩波書店, 2009.

ABSTRACT

## The Social agency of Migrant Youth Self-help Organization <Standby Me> in Japan

Lee, Hey Jin\*

Kim, Hyun Mee\*\*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f the self-help organization ‘Standby Me’ organized by migrant youth whose parents came to Japan as refugees from Indo-China in the 1980s. The organization is located in Icho Residential area in Kanagawa prefecture where most refugee families are concentrated. Organizers and activists of Standby Me have commonalities in growing up in this area as cultural minority and successfully transformed their hybrid identity and segregation into powerful resources for social empowerment.

Over the past 20 years, Standby Me has run bilingual school to teach children with migration background to enable them to reconnect with their own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overcome their lack of resources, they have actively made linkages with local schools or teachers, formed solidarity with local activist groups, and tried to recover their transnational connections with their homelands. This article explores the nature of social agency of this self-help group and argues that Standby M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empowerment and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of self-help migrant youth organization.

**Key Words** : Japan, Migrant Youth, Multiculturalism, Refugees, Standby Me, Transnationalism

논문투고일 2018.10.22

심사시작일 2018.11.27

게재확정일 2018.12.12

\* Ulsan Women &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 Yonsei University.